

켈리, KBO리그 데뷔 첫 완봉승…LG, 선두 NC 꺾고 3연승

등록 2020.10.09 19:39:44



[서울=뉴스시스] 박미소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 4회초 LG 선발 켈리가 역투하고 있다. 2020.09.2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김희준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외국인 투수 케이시 켈리(31)가 KBO리그 데뷔 첫 완봉승을 거두며 팀의 연승 행진에 앞장섰다.

켈리는 9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020 신한은행 쏘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9이닝 2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쳐 LG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켈리는 시즌 13승째(7패)를 KBO리그 데뷔 첫 완봉승으로 장식했다. 지난해 KBO리그 무대에 데뷔한 켈리가 9이닝을 소화한 것도 이날 경기가 처음이다. 종전 개인 최다 이닝은 8이닝이었다.

아울러 켈리는 지난 8월30일 잠실 두산전부터 6연승을 달렸다.

선두 NC를 물리치며 3연승을 달린 LG는 71승째(3무 56패)를 수확했다.

켈리는 몸에 맞는 공 3개와 볼넷 1개, 안타 2개를 내줬으나 경기 끝까지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 완봉승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투구수는 112개였다.

안타 1개만 내주고 1회초를 깔끔하게 마친 켈리는 2회초 1사 후 박석민에 안타를 허용했지만, 노진혁과 애런 알테어를 2루 뜬 공과 삼진으로 처리했다.

LG 타선은 2회 큰 것 한 방으로 선취점을 올리며 켈리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2회말 오지환의 안타와 양석환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만든 1사 1, 2루에서 유강남이 좌월 3점포(시즌 14호)를 쏘아올렸다.

3회초를 삼자범퇴로 끝낸 켈리는 4회초 몸에 맞는 공 2개를 내주면서 1사 1, 2루에 놓였으나 박석민에 병살타를 유도해 실점을 막아냈다.

켈리는 5~8회 한 타자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시스] 이윤청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6회말 2사 1루 LG 유강남이 역전 적시타를 날린 후 2루에서 기뻐하고 있다. 2020.09.10. radiohead@newsis.com

이 사이 LG 타선은 추가점을 냈다. 6회말 선두타자 오지환의 2루타와 양석환의 안타로 만든 무사 1, 3루에서 유강남의 병살타 때 3루 주자 오지환이 홈을 밟았다.

8회까지 투구수가 93개에 불과했던 켈리는 9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켈리는 9회초 1사 후 대타 권희동을 볼넷으로, 박민우를 몸에 맞는 공으로 내보내 1사 1, 2루의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양의지를 우익수 뜯공으로 처리한 켈리는 나성범을 삼진으로 처리해 완봉승을 완성했다.

NC는 켈리에 막혀 올 시즌 처음으로 무득점 경기를 했다.

지난해 9월6일 창원 한화 이글스전부터 8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까지 이어온 144경기 연속 득점 행진도 마감했다. 이 부문 최다 기록은 현대 유니콘스가 2000년 5월10일 잠실 LG전부터 2001년 5월25일 수원 한화전까지 기록한 148경기 연속이다.

2연패에 빠진 선두 NC의 시즌 성적은 77승 4무 46패가 됐다.

NC 선발 최성영은 3⅓이닝 4피안타(1홈런) 3실점을 기록하고 시즌 4패째(2승)를 떠안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